

2014년 북한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개 관

2014년 북한경제는 신년사에서 밝힌 농업·건설·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 및 공급 확대 등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화학비료 부문의 생산성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년에 비해 수산업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농업과 함께 강조된 건설부문에서는 특이한 동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간석지 개발 및 수로 건설, 세포등판개간 및 고산과수농장 확장 등 기존의 대형 토목 및 건설 사업들이 지속되었으며,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사업은 위성과학자거리 사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다. 위성과학자거리 등 새로 추진된 건설사업의 상당수는 과학기술부문 인력을 위한 것인데,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신규 투자를 수반하는 새로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혁신’을 통하여 기존 설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에 대한 기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신’은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사상적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인 농업·건설·경공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중화학공업에는 대규모 설비투자보다

1) 군의 관할영역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업은 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에서의 수산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는 당 및 내각과 군의 경제부문에서의 관계변화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설비의 효율성 증대와 농업 및 경공업 부문에 대한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제한적인 투자만을 하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 기조가 2014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노동신문』에서는 발전소나 광산이 아닌 제조업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정일 시대에 시작된 대규모 설비투자사업이 지속된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뿐만 아니라 제철소와 화학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 2013년과도 대비되는 것이다.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 부문에서는 설비투자와 관련된 동향보도는 거의 없었으며, 생산성과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동향들이 주로 보도되었다. 즉, 김책제철소의 선철 생산 증가나 남흥청년화학 및 흥남비료의 비료 생산 증가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이다. 제철이나 화학 부문 모두 2013년에 주요 설비에 대한 투자사업이 일단락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제고시켜 소재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경공업 부문의 설비투자 동향 보도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경공업 부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중화학공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에는 투자 관련 동향에 대한 보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²⁾ 심지어는 농업·과학기술과 함께 신년사에서 주력 부문으로 제시된 건설부문에서조차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추진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농업·건설·과학기술 이외에 자원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문은 화력발전 및 이에 연료탄을 공급하는 석탄광업 부문이다. 연초부터 석탄 생산성과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었으며, 9월 이후에는 화력발전소 공급용 석탄의 증산 성과가 상당한 구체성을 띠면서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 및 석탄광업 부문에서는 다소 생산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타 광업은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신규 투자는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마무리된 설비투자의 영향 등으로 생산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화학공업 부문에서 화학비료 및 농업·경공업용 원·부자재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금속부문도 김책제철소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2) 2013년에도 경공업 부문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보도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II. 산업별 동향

1.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

북한은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소위 '4대 선행부문'과 화학 등 기초공업, 그리고 경공업 부문에 전년대비 5.2%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건설부문은 전년대비 4.3% 증액하였다. 두 부문의 예산 증가율은 2013년의 7.2%와 5.8%에 비하면 하락한 수치이다.

수력발전소 건설부문에서는 2013년에 시작된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이 핵심 사업이며, 백두산 선군발전소, 어랑천 4호 및 5호 발전소,³⁾ 예성강 청년 4호 발전소 등 중대형 발전소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⁴⁾ 전년에 이어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자강도에서 향후 2년 내에 1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수만 kW의 발전능력을 능력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2014년부터 홍주 3호, 초산 2호 발전소, 자성군 귀인발전소, 중간군 중간발전소, 진철발전소의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다.⁵⁾ 양강도에서도 최근 2년 남짓한 기간에 1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⁶⁾ 운흥강 4호 발전소, 신장발전소 등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⁷⁾ 이 밖에 함주추상 1호 발전소가 준공되었으며, 금야강 2호 발전소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⁸⁾

전력 증산은 매년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2014년에는 특히 화력발전부문이 강조되었으며, 석탄광업, 금속, 기계 등의 산업부문에서 화력발전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신문』 등은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전 국가적, 전 사회적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관련 동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화력발전부문의 증산 및 이와 관련된 화력탄 공급 성과에 관한 동향은 2014년 9월 이후에 집중되고 있다.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 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등의 성과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들 화력발전소에 대한 ‘화력탄’ 공급의 성과도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수력발전부문의 성과보도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데, 서두수발전소, 태천발전소, 수봉발전소, 강계청년, 안변청년 2호 발전소 등의 성과가 보도되었다. 전체적으로 2014년 전력생산은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3) 어랑천 2호 발전소는 1월 초에 조업 준비 중이라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 건설이 완료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2014. 1. 12.

4) 예성강 청년 4호발전소는 11월 28일 준공되었다. 『노동신문』, 2014. 11. 28.

5) 『중앙방송』, 2014. 5. 15. 『노동신문』, 2014. 8. 29.

6) 『평양·중앙방송』, 2014. 5. 15.

7) 『노동신문』, 2014. 11. 2; 2014. 11. 30.

8) 『노동신문』, 2014. 12. 11; 2014. 12. 27.

화력발전과 함께 석탄부문도 동향 및 성과보도가 상당히 늘어났다. 북한은 서부지구 및 북부지구의 주요 탄광들에서 300만t의 능력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10개의 주요 대상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보도하였다.⁹⁾ 그리고 남양탄광, 제남광산 등 일부 탄광에서 새로운 갱의 개발이나 컨베이어 벨트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석탄공업성이 1월 생산계획을 8% 초과달성하였다는 보도¹⁰⁾를 비롯하여 거의 매달 전체 석탄생산계획의 초과달성이 보도되었다.¹¹⁾ 그리고 거의 모든 탄광연합기업소에 대해서도 생산계획 달성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중소형 탄광의 성과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¹²⁾ 특이한 점은 석탄 증산 보도가 구체적인 수치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백수십만톤의 석탄을 증산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계획보다 40여 만톤의 석탄을 추가 생산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5.3% 증산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³⁾ 수치를 동반한 증산 보도는 9월 이후 화력발전소용 석탄 생산에 관한 보도에서도 이어지는데, 10월에는 9월에 비해 수만톤의 화력탄을 증산하였으며,¹⁴⁾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톤의 석탄을 더 화력발전소에 공급하였다고 한다.¹⁵⁾ 이러한 석탄 증산 캠페인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석탄 생산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화력발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철광석 등 여타 광업부문에서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신규 수직갱 준공 및 13 수직갱 대보수,¹⁶⁾ 무산광산연합기업소 3호 대형 원추형 파쇄장 건설 및 2선광직당의 PLC 장치에 의한 공정조정체계 확립,¹⁷⁾ 3월 5일 광산 몰리브덴공장 건설 및 조업,¹⁸⁾ 자강도 우시광산 선광장 완공 및 조업¹⁹⁾ 등 제한적인 투자성고가 보도되었다. 생산실적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율 및 재령 광산 등 철광산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으로 보도되었다.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 보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생산은 최근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마무리된 설비를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철·제강 부문은 2013년에는 핵심 설비에 대한 투자동향이 다수 보도²⁰⁾된 것과 대조적으로 핵심 설비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 동향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청진제강소의 3호, 4호 회전로 현대화 공사,²¹⁾ 성진제강의 3호 회전로의 기술개선, 1호 산호용용로의 수냉화,

9) 『노동신문』, 2014. 10. 15.

10) 『노동신문』, 2014. 1. 31.

11) 예를 들면, 8월 생산계획을 9.3% 초과달성, 1월 생산계획 19% 초과달성 등. 『노동신문』, 2014. 9. 1; 2014. 12. 7.

12) 중소형 탄광들은 연간 생산계획을 12% 초과달성하였으며, 중소 탄광국은 150여 개의 탄광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중앙통신』, 2014. 12. 5.

13) 『노동신문』, 2014. 6. 18; 2014. 9. 1.

14)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4. 11. 4.

15) 『노동신문』, 2014. 12. 7.

16) 『중앙방송』, 『평양방송』, 2014. 5. 22; 『노동신문』 2014. 12. 3.

17) 『노동신문』, 2014. 5. 13.

18) 『노동신문』, 2014. 8. 5.

19) 『중앙통신』, 『평양방송』, 2014. 5. 29.

20) 2013년에는 김책제철소 3호 용광로의 대보수와 주요 제철소에 대한 고온공기연소기술 도입 등 굵직한 투자동향이 보도되었다.

21) 『노동신문』, 2014. 3. 31.

연속조괴공정 건설 추진²²⁾ 등이 설비투자과 관련된 동향의 전부이다. 반면, 성과보도는 2013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3호 용광로 보수를 완료한 김책제철소의 선철 및 강재 생산성과와 청진강재공장의 철강재 생산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밖에 성진제강소, 황해제철소 등의 주체철 생산성과가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철강재 사정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여 천리마제강 등에 대한 파철공급 기사가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철분야 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단천제련소의 설비확충 동향이 주요하게 보도되었다.²³⁾

화학공업에서도 금속공업과 마찬가지로 설비투자 동향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²⁴⁾ 대신 최근에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완료된 대형 설비들의 생산성과가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북한 매체들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 비료공정이 조업 이래 월 최고 비료생산 기록을 여러 번 갱신하였으며,²⁵⁾ 홍남비료연합기업소도 20일간의 설비집중 대보수와 함께 7월 30일까지 시비년도 화학비료 생산계획 완료 등 비료생산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이들 대형 석탄가스화 비료 생산설비의 생산고정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2년에 2단계 개건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2·8 비날론연합기업소의 비날론 및 기초 화학물질의 생산 역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설비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둔화되고 있다면 기계공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건설이 지속되고, 혁신이 강조되고 그 일환으로 설비의 CNC화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기계공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경공업 및 농수산

전년과 달리 경공업 부문에서도 신규 공장의 건설이나 설비 현대화 등에 대한 보도가 크게 줄었다. 신규로 조업한 경공업 공장은 운하대성식료공장과 갈마식료공장²⁷⁾ 정도다. 경공업 부문의 생산성과는 식품기공부문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평양공산공장, 평양밀가루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이 소속되어 있는 평양식료연합기업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²⁸⁾ 이 밖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함흥편직공장, 잠업비단관리국 등 섬유부문과

22) 『노동신문』, 2014. 1. 17.

23) 단천제련소에서는 연 생산공정, 유리섬유수지 생산공정 건설과 조액직장 2단계 현대화 등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4. 5. 7.

24)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 공정 및 물전해 공정 등의 설비집중 대보수는 보도가 유일한 투자 관련 동향이다. 『노동신문』, 2014. 11. 10.

25) 『노동신문』, 2014. 4. 19; 2014. 6. 15; 2014. 11. 9.

26) 『노동신문』, 2014. 11. 10.

27) 『중앙통신』, 2014. 6. 19; 『노동신문』, 2014. 6. 29.

신발, 화장품 등에서 일부 성과가 보도되었는데, 보도비중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추진되던 버섯공장 건설이나 도시 근교의 온실 건설에 대한 보도도 줄어들었다. 각지의 건설 동향이 다수 보도되는 대신에 평양 등 대도시에서의 설비 건설 및 생산 동향이 집약 되어 보도되고 있다. 전년에 이어 지속되는 사업인 고원과수농장 건설사업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투자동향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생산실적 보도도 늘어나지 않았지만 화학공업에서 정공업 부문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 부문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업과 축산업이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문의 성과보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동안 민물 양식 등 내수면 수산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산업의 강조는 농업, 축산업과 함께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공급을 곡물 중심에서 육류 및 해산물 등으로 다양화 및 고급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 등 해양수산 거점이나 갈마식료공장 등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이나 양식장 신규 조성 등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동향이 보도되었으며, 평안북도수산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신창수산 협동조합 등 등 각지의 어로 및 수산물 생산실적 등이 매우 큰 비중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수산업 기지를 주로 군부대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²⁹⁾ 해양수산부문의 강조는 군인을 동원한 세포등판개간사업 등 군대를 경제 건설에 적극 활용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⁰⁾ 특히 수산업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이고 당과 군이 이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부대를 동원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 기지를 건설하고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산부문의 외화 수입 및 사용에 대한 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건설

건설부문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투자부문이며, 2014년 신년사에서는 농업, 과학기술과

28) 『노동신문』, 2014. 1. 12; 2014. 2. 27; 2014. 4. 1; 2014. 7. 2 등.

29) 『노동신문』, 2014. 2. 21; 2014. 3. 24 참조.

30) 해양수산부문의 성과를 선전하는 보도 중 상당수는 해당 성과가 군부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함께 주력 부문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규모 수력발전소, 간석지 및 물길 건설 등 계속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2014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2년이나 2013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평양 주택 10만호 및 대형 유희장 건설이, 2013년에는 각지의 체육시설이 주로 건설되었다면, 2014년에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살림집, 합숙소, 교육시설 건설사업이 주로 추진되었다. 위성과학자거리,³¹⁾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합숙소,³²⁾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³³⁾ 평양 육아원 및 애육원,³⁴⁾ 연풍과학자휴양소 등이 완공되었으며, 함경북도 청진시 살림집,³⁵⁾ 동평양지구 상업거리,³⁶⁾ 평양시 미래과학자거리³⁷⁾ 등이 추진 중이다³⁸⁾.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개별 사업의 규모도 평균적으로 이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의 제한적인 추진과 함께 기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이라는 구호하에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문의 생산활동은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위성과학자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래과학자거리 등 주택을 비롯한 건설사업의 상당수가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과학기술부문의 강조가 건설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Ⅲ.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김정은식 실용주의’가 2014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소 건설이나 간석지 개간사업 등 지속사업과 함께 농업과 화력발전 부문에 자원투입이 집중된 가운데, 제조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설비투자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부문에서도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추진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에 완료된 설비투자의 성과가 금속 및 화학 등 소재부문을

31) 위성과학자거리는 평양시 은정지구에 건설되었는데, 24동, 천수백 세대의 살림집 및 공공건물로 구성되며, 2014년 10월에 준공되었다. 또한 은정과학자구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등 9개의 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4. 3. 26; 2014. 5. 30; 2014. 10. 18 참조.

32) 이 합숙소는 준공 이후 김정은이 방문하는 등 주요 성과로 선전되고 있다.

33) 대동강변에 건설된 2개동 46층 주택단지 2014년 10월에 완공되었다. 『노동신문』, 2014. 5. 21; 2014. 10. 17.

34) 2014년 10월 27일에 준공되었다. 김정은은 이 시설들을 건설 중 및 완공 이후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다. 『노동신문』, 2014. 8. 13, 2014. 10. 28.

35) 2,000여 세대의 다층 및 고층 살림집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 『평양방송』, 2014. 1. 17. 해주시에서도 수백 세대의 주택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2014. 7. 19.

36) 1월 16일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중앙통신』, 2014. 1. 16.

37) 500여 세대의 고층, 초고층 주택과 탁아소, 유치원, 편의봉사망을 비롯한 공공 및 봉사 건물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중앙통신』, 2014. 9. 10.

38) 이 밖에 평양국제비행장 건설, 중앙동물원 개보수, 순천부두 준공, 5월1일경기장 개보수, 러시아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철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 철도 개건 공사 착공 및 북부 철길 현대화 사업 등이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중심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농업 및 경공업 부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2014년 북한경제는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부문과 석탄을 중심으로 한 광업, 화학과 금속 등에서 소폭이지만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의 진전 등으로 경공업도 식품가공부문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기계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은 전년에 비해 생산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건설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 목격되었던 환율과 물가의 안정세는 2014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어쩌면 환율과 물가의 안정이야말로 2013년에 이어 2014년 북한경제의 가장 큰 성과 하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투자정책이 이러한 환율과 물가의 안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년에도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제한된 재정역량만으로도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농업을 중심으로 농축수산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2015년 신년사의 경제분야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전력과 석탄 산업 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 부문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를 잘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강조하였던 경공업도 전반적인 투자와 공급 증가보다는 식료품과 학용품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2015년 신년사의 경제정책 기조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나름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경제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분명 존재하지만 경제성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변화가 2015년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경제관리제도와 대외경제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5년 북한경제는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의 미약한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대규모의 투자는 추진되지 않았지만, 최근 완료된 투자의 성과나 물가의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화의 진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신문』, 2014. 1. 12; 2014. 1. 17; 2014. 1. 31; 2014. 2. 21; 2014. 2. 27; 2014. 3. 24; 2014. 3. 26; 2014. 3. 31; 2014. 4. 1; 2014. 4. 19; 2014. 5. 7; 2014. 5. 13; 2014. 5. 15; 2014. 5. 21; 2014. 5. 30; 2014. 6. 15; 2014. 6. 18; 2014. 6. 29; 2014. 7. 2; 2014. 7. 19; 2014. 8. 5; 2014. 8. 13; 2014. 8. 29; 2014. 9. 1; 2014. 9. 1; 2014. 10. 15; 2014. 10. 17; 2014. 10. 18; 2014. 10. 28; 2014. 11. 2; 2014. 11. 9; 2014. 11. 10; 2014. 11. 30; 2014. 12. 3; 2014. 12. 7; 2014. 12. 11; 2014. 12. 27.

『중앙통신』, 2014. 1. 16; 2014. 6. 19; 2014. 9. 10.

『중앙방송』, 『평양방송』, 2014. 5. 15; 2014. 5. 22; 2014. 5. 29.